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삼상 7:7-12)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추석명절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7장 7-12절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도우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족의 필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을 흠으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무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에벤에셀의 의미: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자리에 “에벤에셀(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표시이었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다시 믿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에벤에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쉽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돌과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고백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가정의 신앙교육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오늘 추석 감사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정이 에벤에셀을 세우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명절을 지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신앙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길에도 변함없이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믿음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의 풍성함 속에서 무엇보다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

추석
가정예배

◆◆◆ 2025년 추석 가정예배 순서 ◆◆◆

예 식 사 인도자

기쁘고 즐거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석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찬 559장)**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말은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욕심과 세상 걱정애 얽매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본문 사무엘상 7:7-12 **다같이**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말 씬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은이**

기 도 **설교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셔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언제나 은혜로 덮으시고, 자비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에벤에셀의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셨던 은혜를 전하며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한가위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 288장)** **다같이**

1.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3. 주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도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